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계산하다’(프세피조) : ‘계산하다’로 번역된 ‘프세피조’는 ‘프세포스’, 곧 ‘작은 돌맹이’를 뜻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예전엔 작은 돌을 세어서 계산했기 때문이지요. 계산은 판단과 결정을 이끌기 위한 행위이므로, ‘프세피조’는 법적인 결정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뜻을 생각하는 것은 감성적 느낌만이 아니라 치밀한 이성적 판단과 결정을 동반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의 바탕 위에 상식과 논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계산해보는 것도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 주일 학교 개학 안내

- 개학일 : 9월 21일
- 새학기를 맞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봉사해주시는 교리교사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 모임 / 회의

- 사목 회의 : 다음 주일(14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전례 성가

입당 : 17 (정의의 하느님)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159 (세상의 참된 행복)
파견 : 283 (순교자 찬가)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29.17€ • 교무금 00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7일)	다음 주일(9월 14일)
1독서: 서인복 리노 2독서: 류정연 릿타 복 사: 정아인 레나, 문수빈 미카엘라	1독서: 이민찬 비오 2독서: 윤지영 베레나 복 사: 김사빈 엠마, 강윤아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9월 7일

(녹) 연중 제 23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굿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쫓아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1독서 (지혜서 9,13-18)

- 13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14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 15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흠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16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17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8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12,18-19.22-24ㄱ)

사랑하는 그대여, 9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10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2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14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루카 14,1.7-14)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프란치스코 성인을 본받

아 하느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

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세상의 모든 아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느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

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지켜 주시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

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뵈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 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